

존재의 실존은 더이상 물질로써 규명되지 않는다. 살아 움직이며 태동하는 모든 것에게,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물질성은 여태껏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지녀왔다. 그러나 세계의 물질성에 깊게 뿌리내린 감각은 점차 모호해졌고, 우리는 덮쳐오는 모호함을 마주해야만 한다.

그렇다면 실재는 어디에 있는가.

현실은 어디인가. 자신이 발을 디딜 수 있는, 본인에게 주어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곳이면, 그곳은 대개 현실이 되곤 한다. 그렇다면 실존을 증명할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현실이 아닌 곳에 있게 되는가. 현실에 대립하는 곳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.

가상은 어디인가. 가상 공간을 단순히 현실이 아닌 곳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. 애초에 가상은 허구의 의미만을 지니는, 거짓이고 무의미한 사이버 조각일 뿐인가. 그런 의미의 가상에는 실재라는 어휘를 부여할 수 없다. 결국 가상은 대체 무엇인가.

어떤 모양인지 알 길 없는 채로,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. 이원적으로 대립하지 않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나, 그럼에도 우리 곁에 혹은 우리 내면에서도 머무르는 것.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.

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 본 전시는 현실과 가상이 실재라는 모뎀 안에서 신호가 얹히며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. 각각의 개인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전시 경험을 인식함으로써 가상의 어떤 존재로서 다시금 자리하게 될 것이다.

기획 | 박민지 박예빈

작가 | 박민지 박예빈 장서영

개발 | 박성택

지도 |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정연심

지원 | 홍익대학교 대학교육혁신사업단



해당 QR코드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 
《모뎀 스페이스》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작품

1. <가상 지구 분양권 판매소>, 박민지, 2023, 3D 모델링.
2. <애착 인형>, 박예빈, 2023, 3D 모델링.
3. <누군가의 실재> 연작 중 <“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”>, 장서영, 2021, 단채널 비디오, 흑백, 사운드, 1분.
- 4, 5, 6, 7, 8. <누군가의 실재> 연작, 장서영, 2022, 디지털 이미지.
10. <현재; 인식의 순간>, 장서영, 2021, 단채널 비디오, 컬러, 사운드, 13초.

## 큐레이팅 글

1. 전시 《모뎀 스페이스》기획의 글
2. <가상 지구 분양권 판매소> 큐레이팅 에세이
3. <애착 인형> 큐레이팅 에세이
4. <누군가의 실재> 연작, <현재; 인식의 순간> 큐레이팅 에세이

